
이슈 모니터링

이슈 모니터링: 최근 물가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¹⁾

요약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5월 12일~6월 2일 중 전국 5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 350개)를 실시하였다.

[물가상승의 영향]

설문에 응한 모든 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20% 이상' 상승하였다는 응답도 40%에 달하였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전체 기업의 69%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아직 인상하지 않은 업체들(31%)도 상당수 있었으며, 특히 건설업은 47%가 인상을 미룬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상을 미룬 업체 중 절반 정도는 금년 내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평균 임금**은 지난해 대비 대체로 '2~5%'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임금인상률 '2% 미만'으로 답했던 업체들의 73%는 내년 중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일부 도시 봉쇄의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사태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업체(41%)가 적지 않았다. **중국의 일부 도시 봉쇄**는 '수출입 지연', '원재료 가격 상승', '물류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봉쇄로 인한 생산활동 중단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체의 27%에 달했다. 봉쇄 영향의 지속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향후 물가 예상 및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

대다수 기업들(86%)은 금년 하반기에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향후 물가상승에 대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서비스업에서는 '가격 인상'과 함께 '고용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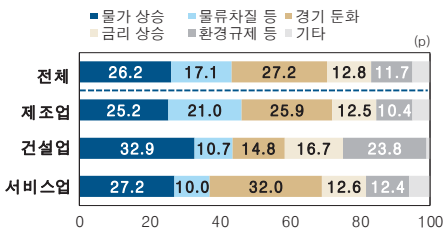
1)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강남본부 제외)가 5월 12일~6월 2일 중 전국 570개 업체(제조업: 343개, 건설업: 30개, 서비스업: 19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업체 중 350개 업체가 응답(부분 응답 포함, 응답률 61.4%)하였으며, 응답업체는 제조업 224개(64.0%), 건설업 18개(5.1%) 서비스업 108개(30.9%)로 구성되었다.

1 조사 개요²⁾

금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도시를 봉쇄하였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최근 물가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 1) 기업들의 대내외 리스크 중요도¹⁾ 평가

최근 대두되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중요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 둔화'(27점), '물가 상승'(26점), '물류차질 및 지정학적 리스크'(17점)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업체가 각 리스크에 부여한 점수를 평균

'물류차질 및 지정학적 리스크'도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응답 업체들은 다른 리스크에 비해 물가 상승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물가 상승과 금년 중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일부 도시 봉쇄가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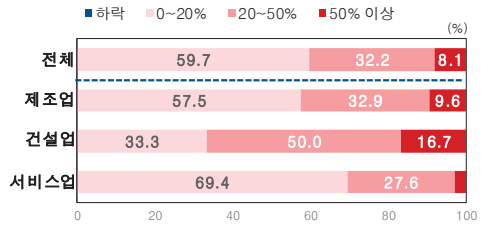
2 물가상승의 영향

(원재료 가격 상승)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업체가 상승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중 60%는 지난해 대비 '20% 미만', 40%는 '20%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67%의 업체가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원재료¹⁾ 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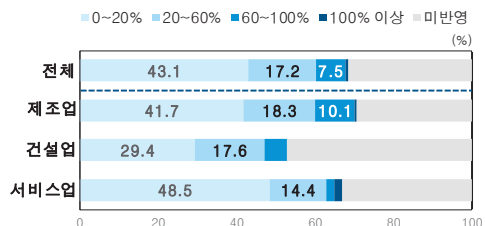
주: 1) 생산·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건자재, 상품 및 부품·기계 등

(판매가격 인상)

전체 69%의 업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제품·서비스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약 2/3는 가격 상승분의 '20% 미만'으로 인상했다고 답했다. 반면, 31%는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건설업에서는 인상하지 않은 업체의 비중이 47%로 조사되었다.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기업들 중 53%는 금년 내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89%가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 이상' 인상하겠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도 67%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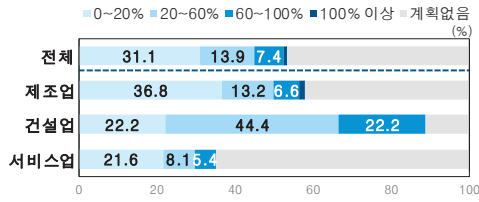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¹⁾



주: 1)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반영(가격 인상) 비율

2) 세부 업종별 응답 결과는 <참고 2> "주요 업종별 응답 결과" 참조

판매가격 미인상 업체의 금년 내 인상 계획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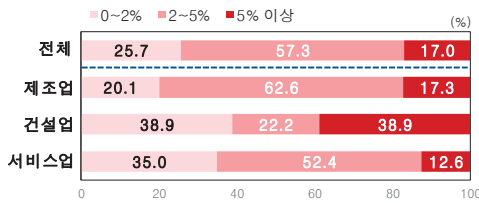
주: 1)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업체 중 금년 내 인상 계획을 보유한 업체의 반영(가격 인상) 비율

(임금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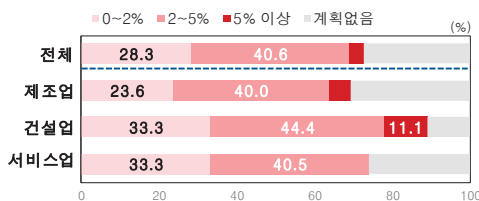
평균임금은 지난해 대비 대체로 2~5%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건설업은 평균임금 인상률이 '2% 미만'과 '5% 이상'인 업체 비중이 각각 39%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 경향³⁾을 보였다.

한편 임금인상률이 '2% 미만'으로 낮은 업체들의 73%는 내년에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상률은 '2~5%'가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에서는 '5% 이상' 인상하겠다는 업체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대비 평균임금 변동



평균임금 인상률이 낮은 업체의 내년 인상 계획¹⁾



주: 1) 지난해 대비 평균임금 인상률이 0~2%라고 응답한 업체 중 내년에 인상할 계획이 있는 업체의 인상률

③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일부 도시 봉쇄의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다수 업체들은 금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재료 가격 상승'(67%)과 '물류비 상승'(36%)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답변하였다.(복수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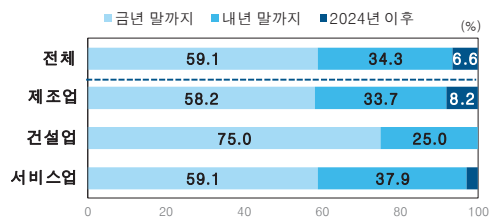
또한 응답업체의 과반 이상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년 말까지'(59%)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내년 이후'(41%)까지 내다보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친 영향¹⁾

업종	원재료 가격 상승	수입 지연	물류비 상승	영향없음	기타
전체	66.7	18.2	36.1	14.1	28.2
제조업	68.5	21.1	40.4	10.8	33.8
건설업	83.3	0.0	16.7	16.7	0.0
서비스업	57.6	12.1	25.8	24.2	15.2

주: 1) 복수 응답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지속 기간



(중국 일부 도시 봉쇄의 영향)

중국 일부 도시 봉쇄⁴⁾의 영향(복수 응답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출입 지연'(40%), '원재료 가격 상승'(36%), '물류비 상승'(24%)을 선택하였다. 특

3) 건설업의 경우 최근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비율이 44%(전체 35%)에 달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숙련공과 비숙련공 간의 임금 격차가 큰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히 봉쇄로 인해 생산활동 중단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제조업체 31% 등 전체의 27%에 달하였다.⁵⁾

봉쇄 영향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88%가 '금년 말까지'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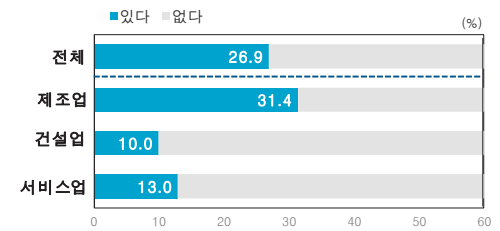
중국 일부 도시 봉쇄가 미친 영향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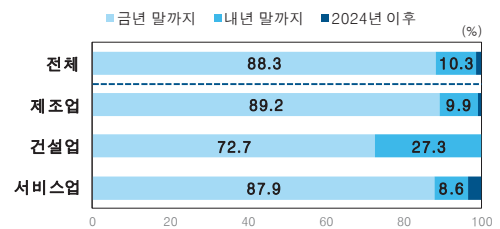
업종	원재료 가격 상승	수출입 지연	물류비 상승	생산설비 가동 차질 ²⁾	영향 없음	기타
전체	36.1	39.6	23.5	22.1	23.9	14.7
제조업	36.9	46.3	29.0	27.1	20.6	13.1
건설업	63.6	9.1	9.1	18.2	36.4	18.2
서비스업	28.3	21.7	6.7	5.0	33.3	20.0

주: 1) 복수 응답
2) 국내공장 가동 차질 및 현지공장 가동 중단

중국 일부 도시 봉쇄에 따른 생산활동 중단 경험



중국 일부 도시 봉쇄 영향의 지속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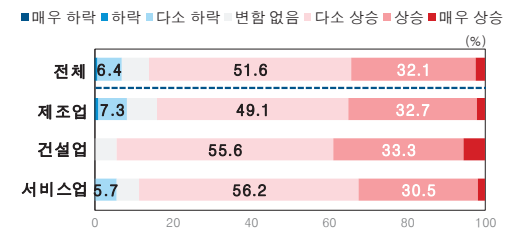


4 향후 물가 예상 및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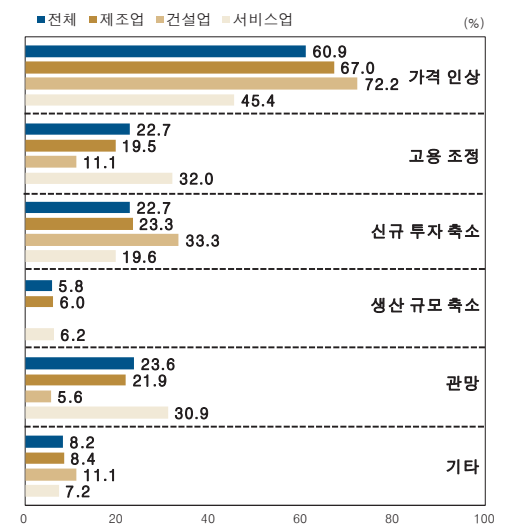
대다수 기업들(86%)은 금년 하반기에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⁶⁾

향후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61%)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서비스업에서는 '가격 인상'(45%)과 함께 '고용 조정'(32%)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후 물가 예상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¹⁾



주: 1) 복수 응답

4)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칭링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도시를 대상으로 통행 금지를 포함한 전면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3월 14일 선전시, 21일 지린시, 27일 상하이시에 봉쇄령이 내려졌으며 전 인구 검사를 통해 확진자가 감소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해제되었다.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하이시의 봉쇄는 6월 1일 해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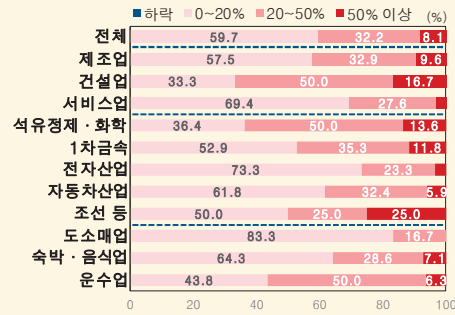
5) 세부 업종별로는 중국과 생산활동 연계가 강한 자동차산업(46%)과 전자산업(37%)에서 높게 나타났다.

6) 다만 석유정제·화학의 경우 '다소 하락' 또는 '변함 없음'에 응답한 업체가 50%를 차지하여 국제유가 등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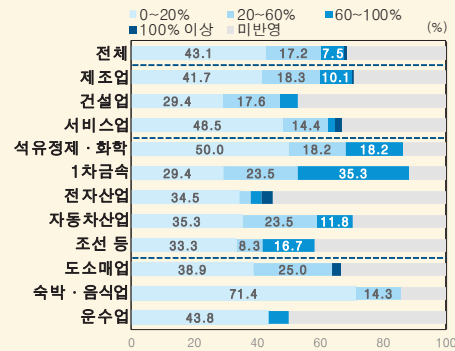
주요 업종별 응답 결과

1. 지난해 대비 원재료¹⁾ 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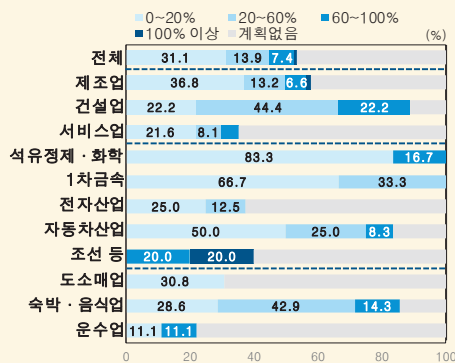
주: 1) 생산·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건자재, 상품 및 부품·기계 등

2-1.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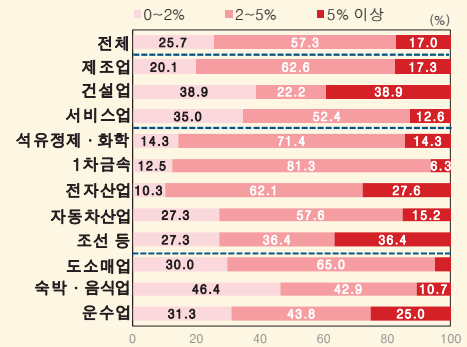
주: 1)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반영(가격 인상) 비율

2-2. 판매가격 미인상 업체의 금년 내 인상 계획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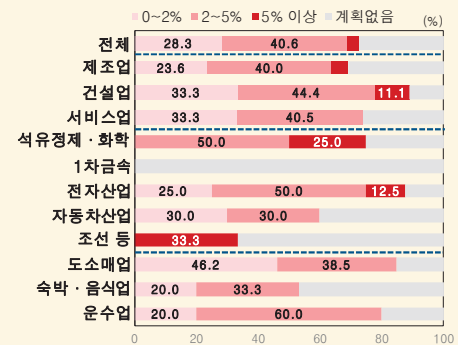


주: 1)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업체 중 금년 내 인상할 계획을 보유한 업체의 반영(가격 인상) 비율

3-1. 지난해 대비 평균임금 변동



3-2. 평균임금 인상이 낮은 업체의 내년 인상 계획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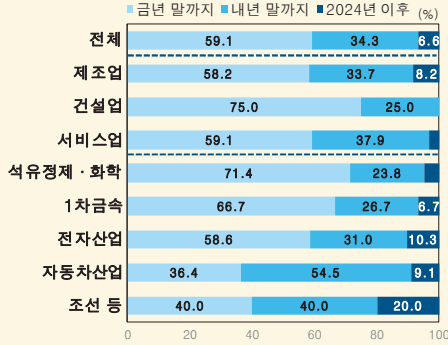
주: 1) 지난해 대비 평균임금 인상이 0~2%라고 응답한 업체 중 내년에 인상할 계획을 보유한 업체의 인상률

4-1.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친 영향¹⁾

업종	원재료 가격 상승	수입 지연	물류비 상승	영향없음	기타
전체	66.7	18.2	36.1	14.1	28.2
제조업	68.5	21.1	40.4	10.8	33.8
건설업	83.3	0.0	16.7	16.7	0.0
서비스업	57.6	12.1	25.8	24.2	15.2
석유정제·화학	81.8	18.2	36.4	13.6	27.3
1차금속	81.3	18.8	37.5	6.3	43.8

주: 1) 복수 응답

4-2.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지속 기간



5-1. 중국 일부 도시 봉쇄가 미친 영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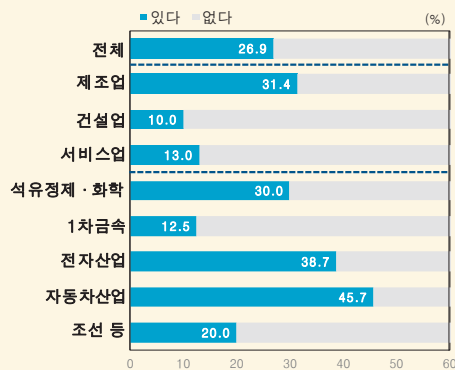
(%)

업종	원재료 가격 상승	수출입 지연	물류비 상승	생산설비 가동 차질 ²⁾	영향 없음	기타
전체	36.1	39.6	23.5	22.1	23.9	14.7
제조업	36.9	46.3	29.0	27.1	20.6	13.1
건설업	63.6	9.1	9.1	18.2	36.4	18.2
서비스업	28.3	21.7	6.7	5.0	33.3	20.0
전자산업	51.6	58.1	38.7	29.0	12.9	0.0
자동차산업	25.7	57.1	34.3	60.0	11.4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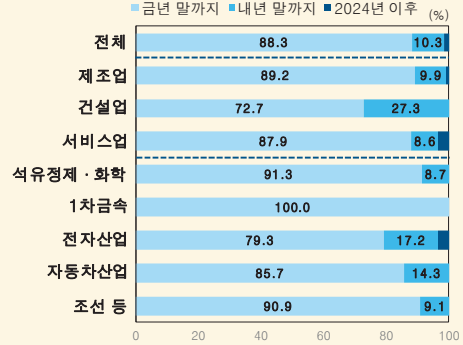
주: 1) 복수 응답

2) 국내공장 가동 차질 및 현지공장 가동 중단

5-2. 중국 일부 도시 봉쇄에 따른 생산활동 중단 경험



5-3. 중국 일부 도시 봉쇄 영향의 지속 기간



6. 금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후 물가 예상

